**롬0607 Note**

**◆Cross check : 벧전0224**

벧전0224. 그분은 나무에 달린 그분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친히 짊어지셨으니(아나페로:들어 올리다,짊어지다,끌고 올라가다,기르다,수행하다,앞지르다), 이는 죄들에게 죽어있는 우리가 '법적 깨끗함[디카이오쉬네:히브리어 체다카(의로움,정직,공의,덕,번영,알맞게,의로운,의롭게,의롭게 행함)에 상응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(공정한,흠 없는,거룩한,의로운)에서 유래,공정(公正),정의,칭의,의]'에는 살아있게 하려 하심이라. 그분의 채찍(몰롭스:검은 점,검은 눈동자,멍든 자국,멍,타박상,채찍)들에 의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(이아오마이:치유하다,온전케 하다).